

‘광주 학교자치조례’ 제동… 교육계 또 홍역

교과부, 市교육청에 재의 요구 통보… 대립격화 예고
시교육청, 조만간 시의회에 재의 요구… 7월께 결정

첨예한 갈등 속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교과부의 재의 요청은 학교자치조

례가 ▲교장의 예산운용권 등 침해 ▲법령의 근거가 없는 교사의 교장 등에 대한 평가권 부여 등의 소지가 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례 제정 반대를 외쳤던 교육단체는 “재의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광주시의회와 조례제정에 찬성한 측은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한 뒤 재의결하겠다”고 밝혀 찬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21일까지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고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조만간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시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 결의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해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오는 7월께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

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 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한다’는 등의 조례 규정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또 ‘교사의 평가권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사의 평가권은 상위 법령에 조례 제정 반대를 외쳤던 교육단체는 “재의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광주시의회와 조례제정에 찬성한 측은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한 뒤 재의결하겠다”고 밝혀 찬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21일까지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고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미경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사무국장은 “기존 조례와 충돌하고 상위법 근거도 미약해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 제정 전 교과부에 의견을 구했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더니 제정하고 나니 싸움을 걸기라도 하듯 재의를 요구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80대 할머니 키우던 개에 물려 숨져

광주서… 현장 출동 경찰 권총 사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 물려 숨졌다.

20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주택에서 A(여·81)씨가 키우던 개에 얼굴과 목 등을 물려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옆을 맴돌고 있던 개가 또다시 사람을 물을 것을 우려, 권총 2발을 쏴 사살했다.

A씨가 키우는 개는 호피무늬 개로 진도개 수컷으로 크기 60

cm 정도이며, 체중은 20kg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낡은 목줄을 끊고 나가 이웃집에 묶여있던 골든 리트리버종 암개와 함께 놀고 있는 자신의 개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서면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씨는 4년 전부터 둘째 아들이 가져온 호피무늬 진도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걸식아동 전달 ‘사랑의 밀반찬’

에 전달할 밀반찬을 담고 있다.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희망나눔봉사센터 광주 지역본부 식당에서 열린 ‘사랑의 밀반찬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동일전자정보고, 첨단고, 비아중 등 광주지역 RCY단원과 적십자봉사원들이 걸식아동세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NA가 밝혀낸 9년전 성폭행

동부경찰, 13세 여아 성폭행범 검거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아 완전범죄가 될 뻔했지만 현장에 남은 자신의 DNA만은 없애지 못해 범행 9년만에 검거됐다.

광주동부경찰은 20일 중학생을 흔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16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A(당시 13세)씨의 집에 침입, A양을 흔기로 위협한 뒤 현금 5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 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2004년 중순에 경기도 성남에서 붙잡혀 8년 복역 후, 지난해 11월9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출소에 앞서 경찰의 전파자 DNA 채취·분석 결과, 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채취한 범인의 DNA와 김씨의 DNA가 동일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출소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휴대폰을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 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2004년 중순에 경기도 성남에서 붙잡혀 8년 복역 후, 지난해 11월9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출소에 앞서 경찰의 전파자 DNA 채취·분석 결과, 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채취한 범인의 DNA와 김씨의 DNA가 동일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출소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휴대폰을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

시 40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흔기로 두 차례씩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